

추 모 사

**종조 도의국사님 법체에 삼가 추모
인사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신
뒤 45년 동안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가르침을
펼치시며 그들을 제도하신 이래 서역
여러 나라와 중국을 거쳐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지 1600여년이 지났
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불교 역사에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나타나 교학을 발전시키고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어루만져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동불교사에 여러 조사스님이 계시지만 한국선문의 초조이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이신 분이 도의국사이십니다.

종조께서는 이 땅에서 다양한 불교 교학을 두루 섭렵한 뒤 784년 선덕여왕 5년에 중국 유학을 떠나 선에 입문하시어, 중국 선종의 정통 맥을

**확립한 서당 지장선사의 인가를 받고
821년 헌강왕13년에 귀국하여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남종선을 전하셨습니다.**

**종조께서 처음으로 서당 대사를 만나
도를 묻고 가슴 속에 맺혔던 답답함을
푸니, 대사께서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내
법을 전하겠는가?”라며 법을 전하고
도의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또
백장스님은 강서 마조스님의 법맥이
모두 동국의 스님에게로 귀속했다고
찬탄하셨습니다.**

고려시대 이래로 불문에서는 “도의 대사를 제1조로 삼는다”는 의식이 전해지고 있었으므로, 우리 조계종에서 국사님을 종조로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오랜 동안 우리 불교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겪느라 종조를 선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당연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종단이 안정되어, 종조께서 주석하셨던 진전사를 복원하고 국사께서 계를 받으신 중국의 개원사에

‘수법 기념비’를 제막하였으며 해마다 추모 다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도들은 국사의 수행 정신을 이어받아 무엇보다도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막힌 곳은 소통시키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이해와 관용의 꽃이 피어오르는 멋진 화엄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종조님이시여!

오늘 종조를 기리는 다례를 봉행하며,

**감로차를 올리오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승가가 화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며,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여 불국정토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기 2554년 6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